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7 Number 12 • 12 2009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아담으로 오신 창조주-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고전 15:45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첫 아담〉
고전 15:45

복음에
어느 아담이 불필요할까요?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한다.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는 복음의 가장 함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이며, 창조이래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창조자가 스스로 자신의 형상이자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님을 굳이 아담이라고 표현했을까? 성경의 다른 인물이나 아니면 그냥 한 평범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이다. 이 궁금증에 대한 실

마리는 당연히 ‘첫 아담’에서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첫 사람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자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의 첫 조상이다(창 1: 26, 27; 2:7). 우리는 모두 그의 혈통을 이어 받았다(눅 3장; 행 17:26).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범죄함으로 인해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요 1:3; 골 1:16). 그분은 죄 없이 거룩한 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과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죄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 분명히 있었다! 죄가 들어오기 전,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범죄하기 이전인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 지음 없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이 됨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전 15:22; 빌 2:8).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란 표현 속에는 이 세상은 처음이 좋았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 없이 창조되었으며,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죽음이 들어왔으며, 그래서 그 창조주께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죄 짓기 전의 아담의 모습으로 흠 없이 영원한 대속을 완성 하셨다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다시 처음 좋았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롬 5:14)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첫 아담을 모른다면 마지막 아담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첫 아담이 불분명한 만큼 마지막 아담도 애매하게 된다. 과연 성경 그대로 첫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왜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는 왜 오신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세가지였다.

1. 흠으로 빚어 창조됨
2. 남자의 옆구리에서
만들어 짐
3. 부부에게서 만들어 짐

이 세대에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마음에 “첫 사람 아담”이 확실히 않은 것이다. 죄 없던 아담의 첫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 진화론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점점 완성되는 인류의 진화 단계가 마음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짓 증거들이 첫 아담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19세기 중엽, 유럽 교회에서 진화론을 너무 쉽게 수용해버렸다. 사실 당시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진화가 틀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파스퇴르, 파브르, 심슨, 주울, 리스터, 켈빈, 맥스웰 등 주옥 같은 과학자들은 진화론의 비과학성과 성경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를 무시하고 먼저 무너졌다. 진화론을 받아들이자 성경에 대한 신뢰가 바로 떨어져 버렸다.

성경과 수십억 년의 진화과정을 함께 믿으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아마 이런 자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함으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라졌다. 예배당은 빠르게 비워지게 되었으며, 복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경 그대로 존재했던 완전한 첫 아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 사람 아담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지막 아담 역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갖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신의 존재를 쉽게 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편의대로 “나는 진화도 믿으며 하나님도 믿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나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진화의 상대적 용어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즉 그분의 능력과 성품이다. 진화를 믿으면 - 천하의 모든 만물을, 그것이 아무리 크고 복잡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실수 없이 창조하실 수 있으며, 극히 선하신 - 그분의 본질이 변질된다. 하나님의 본질은 계시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이다(요 1:1). 그런 이유 때문에 진화를 믿으면 성경을 믿지 않게 되며 교회를 떠나는 순서를 밟게 되는 것이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1930년도 이전까지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미국이 크리스천 정신을 유럽보다 더 최근까지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진화론이 미국에 상륙했을 때 미국교회도 유럽교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화를 쉽게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유럽과 동일하게 예배당은 급속도로 비워져 갔다. 첫 아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돌아온다. 과연 우리의 자녀는 어떤지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걱정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라는 대답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진화론의 영향으로 오염된 첫 아담이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그리고 자녀와 주위의 이웃들에게 “죄 없이 창조된 첫 사람 아담”에 대한 확신을 통해 “죄 없이 돌아가신 마지막 아담”을 확실히 심어주는 귀중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

“(첫 사람)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사람은 왜 죽을까?



금년도 노벨 의학상이 세 명의 미국 세포 생물학자들에게 주어졌다. 연구의 내용은 세포의 염색체 끝 부분에 관한 것이다. 염색체의 끝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부른다.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긴 핵산의 꼬여 있는 긴 두 가닥의 끝부분, 즉 구두끈의 끝에 붙어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구두끈의 끝과 유사하게 세포의 분열 당시 핵산 끝이 다 풀어 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한다.

세포가 한번 분열 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줄어진다. 태어날 때부터 다시 분열하지 않는 근육, 심근 및 신경세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포는 그냥두면 50번 정도의 분열로 한계에 달한다. 이것을 헤이플릭 한계(Hayflick Limit)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결국 노쇠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늙고 병들어 죽게된다. 그러나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효소의 도움으로 보통 80번 정도의 분열이 가능하다.

핵산 끝의 이런 기전(mechanism)은 1973년에 소련 과학자가 예측을 했으나 블랙번, 그레이더, 소스텍, 이 세 과학자들이 텔로미어의 핵산배열 규명과 이들 핵산을 만드는 효소(텔로머레이스)를 규명한 일이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간단히 말해서 텔로미어와 그 효소를 통해 노화방지, 암치료 및 줄기세포 연구의 실제적인 해답의 관건이 달려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학계뿐만 아니라 모든사람들의 관심이 집중 되게 된 것이다.

텔로미어가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한다면 이 현상을 막아주는 효소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주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유지되어 개체가 장수 할 것이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분명히 흥분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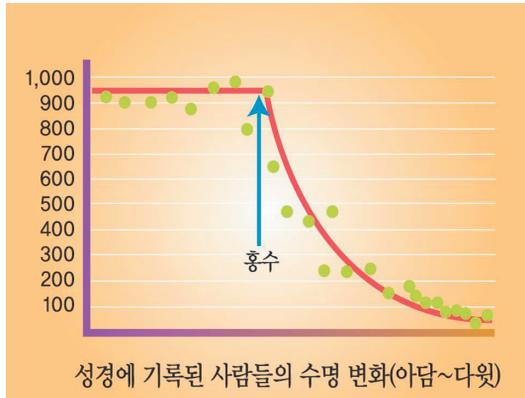
우리 몸 안에는 생식세포나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들 같은 텔로미어의 끝이 짧아지지않는 끝 없이 분열하는 불후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 이 효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나머지

의 대부분의 체세포는 위에 말한바와 같이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이 효소가 그 이상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 유전자 기전으로 말미암아 세포의 노화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명이 유한하도록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유전자 기전이 돌연변이같은 사건으로 망가진 세포는 그만 불후의 세포가 되어 끝없이 분열하여 주위의 다른 세포와 조직을 침식시키므로 개체에 결국 죽음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암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게하는 암은 일정한 수명을 가진 세포가 불후의 세포로 변화된 상태 즉 텔로미어 효소가 끝없이 작용해서 아무리 세포가 분열해도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

결국 노화현상과 암의 본체를 조금 깊이 알게 된 것이다. 노화현상을 지연시켜 장수하려면 이 효소가 많아야하고 그러려면 암의 발상을 우려 할 수밖에 없게되어 신기한 딜레마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효소자체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 텔로미어의 길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시지 못해서 생기는 각종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가 갑자기 노인이 되는 조로증은 이 기전으로 이제 쉽게 이해 할 수가 있다.

몸안에 암이 발생하면 텔로미어효소 양의 증가가 예측되고 이것의 측정으로 암의 조기 진단이나 치료경과를 관찰 할 수 있게 된다. 암의 치료도 암세포의 텔로미어를 계속 연장시켜주는



이 효소를 백신으로 제거시켜주면 그 이상 분열을 중단하고 암세포는 그만 죽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암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니 위에 언급한 몸안의 면역체 세포의 역할을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또 딜레마이다.

노화현상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이유뿐 아니라 사실 다른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다. 소위 말하는 옥시단트로 말미암아 핵산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성분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상하는 것이다. 술, 담배, 염증, 감염, 공기나 식물오염으로 인한다. 안티-옥시단트로 실험동물의 수명을 거의 두배 연장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랍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혈당이 이와 동일한 작용을 한다. 또 다른 이유는 오래산다는 그 자체가 각종 돌연변이 및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이들 원인들을 모두 잘 조정한다면 인간의 수명이 몇년 더 연장 될까? 그래도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시편에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에서 처럼 홍수 이후 문화권에서 우리 모두가 100을 넘기기가 21세기의 과학을 동원해서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이 왜 죽을까? 늙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짧아 지도록 하는 유전정보를 몸안에 장치하신이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고 또 말씀 하시길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고 말씀하십니다.





ACT News

교회 세미나

지난 9월에 이어 10월은 교회 세미나로 가득 찼던 한 달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선교교회(담임 목사 최재원), 텍사스 맥알레 한인교회(담임목사 송창호), 유타 한인교회(한만식), 유타 대학총교회(김철홍), 유타 제일장로교회(권오성), 토론토 성산교회(유윤호) 등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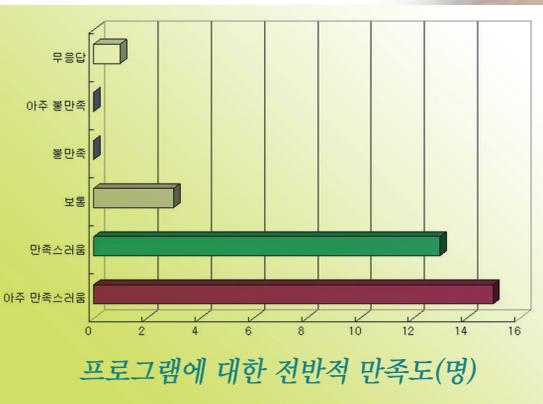
최근 각 교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뿐 아니라, 지난 5월 출판된 “Si-ready Gone(이미 떠나버렸다)”의 내용을 통해 최근 감소하고 있는 교회 안의 젊은 세대와 이에 대한 대안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2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과학이 성경 변증의 필수적 도구라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세미나를 통해 이에 대한 동일한 공감대를 갖고 그 대안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15 페이지의 김홍철 목사의 세미나 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저자세미나- 노아홍수 콘서트

지난 10월 26, 27일 양일간 이재만 선교사는 LA 두란노에서 노아홍수 콘서트 저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지난 4월 출판된 노아홍수 콘서트는 노아홍수 전후기, 과학 패러다임, 지구의 나이를 주제로 구성되어있는데, 책의 내용과 동일한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7차 유학생 탐사여행 모집

오는 1월 4-6일 유학생들을 위한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진화론으로 몰들어있고 각 분야에서도 진화에 영향을 받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세대에 창조과학은 성서 변증의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 없습니다. 특별히 한창 공부하고 있는 시기에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들을 확신함으로 인해 믿음으로 승화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론으로 몰들어있고 각 분야에서도 진화에 영향을 받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세대에 창조과학은 성서 변증의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 없습니다. 특별히 한창 공부하고 있는 시기에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들을 확신함으로 인해 믿음으로 승화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동안 여섯 번에 걸쳐 진행된 유학생 탐사여행은 참석자들을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참석했던 학생들은 더 이상 진화론의 갈등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간증과 함께, 더 나아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비전도 갖추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간증 모음은 www.HisArk.com의 “간증”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순복음 라스베이가스 교회(담임목사 강일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유학생들에 한하여는 참가비가 \$70입니다. 주위의 많은 유학생들에게 추천을 바라며 자세한 정보와 참가신청서는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떠나는 탐사여행

오는 12월 28-30일 샌디에고에서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출발합니다. 매년 12월 말 탐사여행은 샌디에고 한빛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이번이 벌써 8년째 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빛교회(858-874-2412)나 창조과학선교회로 문의 바랍니다.

샌디에고 창조과학박물관

지난 10월 17일 현재 진행중인 창조과학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10월 24일은 엘바인 온누리교회 모세대학을 중심으로 샌디에고에 있는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을 견학 하였습니다. 새로 단장 된 박물관은 입구에 전시 된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들어온 거대 화석 판이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창조와 타락, 노아홍수와 빙하기, 바벨탑 사건을 거쳐 고대와 현대에 이르는 진짜 역사를 통하여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삶에 대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토리파인 비치에서는 노아홍수 증거인 지층과 화석을 직접 관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Great Harvest Church 세미나

김선욱 박사가 인도한 2세 교회 세미나가 지난 10월 24-25일 양일간 캘리포니아 Buena Park에 소재한 Great Harvest Church(담임목사 Peter Cho)에서 열렸습니다. 신생 2세 교회라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끊임없는 질문들을 통해 그들이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창세기를 배우고 가르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가 자주 우리들의 2세 교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의미를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치지 않는 교회

이미 떠나버렸다(4)

어떻게 할 것인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부모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서 잘 자라던 아이들은 10대 사춘기에 이르면서 신앙을 가질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그들이 어느 학교 - 공립학교든, 기독교 학교든, 심지어는 홈 스쿨이든 상관없이 - 에 다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는지가 더 중요했다. 그들은 학교에서 실험과 관찰을 통한 물질과학 즉 사실(fact)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데, 우주의 기원, 공룡, 화석, 생명의 기원 같은 과거에 대한 역사과학도 사실로 느끼면서 배운다. 그들이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둘 다가 모두 과학이라고 여길 뿐이다.

교회에서는 사람들과 즐겁게 찬양도 하고 공작 시간도 갖는다. 그러나 성경책을 확실하지 않고 오래 된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성경이 실제와 연결되지 않는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듣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는 교회 안의 사람들도 수백만년을 믿을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교회의 형편이다.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해 주지만 왜 믿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질(실제)적인 것, 과학적인 것들은 제외 되고 영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 진 상태로 아이들의 세계관이 형성 될 수 밖에 없다. 이 세상과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고는 배우는데 그 내용이 세상에서 배운 사실들과 서로 상충된다.

자연히 물어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마음에 솟아 오르게 된다. “하나님

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죽음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을까? 왜 서로 사랑하는 동성끼리는 결혼할 수 없을까? 불행하게 사는 것 보다 이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구는 오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수천 년 밖에 안 될 수 있나?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지? 왜 성경이나 교회에서는 공룡에 대해 언급이 없지?...”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없으므로, 크리스천들은 “사실”과 상반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 상태는 어른이 되어 가면서 사실과 믿음은 다르며,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믿음은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들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고, 숭고하고 정서적인 것을 배우려면 교회에 가라! 학교는 화석, 공룡, 결혼, 성, 생명의 기원, 옳고 그름, 타종교 등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회의적이며 현실되지도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가, 결국에 교회에 무관심해지고, 마침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세대(Invisible Generation)”가 된다.

20세가 된 한 젊은이의 절규를 들어 보자.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여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말 좀 해 주세요. 왜 삶이 이래야 되는지, 더 풍성하고 기쁜 삶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알게 좀 도와주세요. 공허한 약속들 말구요. 전 진짜를 원해요. 전 진리가 발견 되는 곳이면 어디든 갈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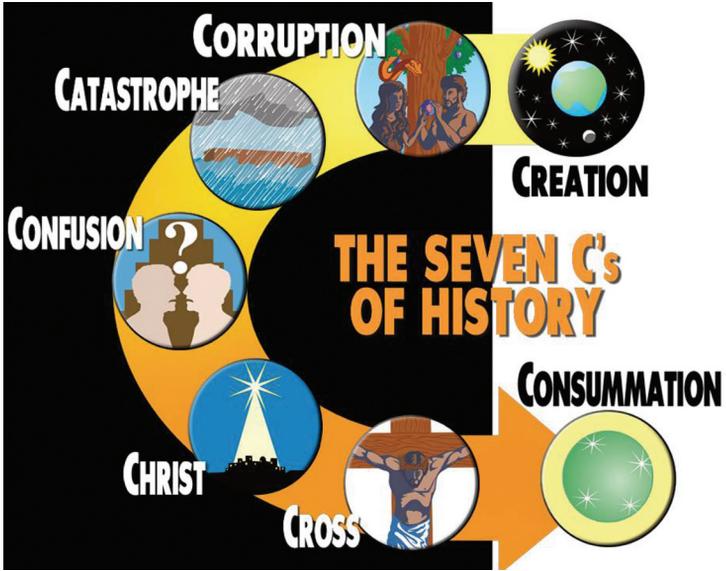
무방비

교회를 떠난 그 젊은이들이 가진 의심은 “하나님이 정말로...?”(창 3:1)라고 의심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때부터 사단은 수 세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여러 질문들을 해왔다. 지난 100년간 사단의 공격은 과학적인 질문들이었다. 예를 들면 빅뱅, 6일 창조, 생명의 창조, 사람의 창조, 전 지구적인 홍수 등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여기는 질문들이다. 요즘 교회의 젊은이들은 이런 질문들과 씨름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과거 영국 교회는 위의 질문에 대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역사에 대해서는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창세기의 성경 기사들을 재해석 하였다. 교회는 믿음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사실에 관해서는 신자들을 무방비



© 2006 Answers in Genesis



7 C로 구성된 우주의 사실 역사(완전한 창조 - 타락 - 홍수 격변 - 바벨의 혼잡 - 그리스도의 탄생 - 십자가 죽음 - 회복) 속에서 바른 현실 이해와 복음이 나올 수 있다.

상태로 버려 두었다. 현재 미국도 이와 비슷한 형편이다.

성경의 권위 문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격은 복음에 대한 공격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복음도, 도덕도, 과거 역사 기록도, 미래에 대한 예언도 없고 기독교는 설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사실임을 성경을 통해 사실로 믿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 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안다. 요나와 물고기 등 다른 기적들도 성경에 기록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실이었음을 안다. 우리는 성경에 불완전한 사람의 생각을 끼워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말과 문맥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 씀하게 해야 한다.

창세기에 기록된 문자적인 사건들이 모든 교리와 복음의 기초다. 예수님도 남녀의 문제를 말씀 하실 때 사람의 창조 기사를 인용하셨다(마19: 4-7). 완전한 복음은 사람의 타락, 원죄, 그리고 11장까지 기록 된 역사적인 사건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들을 재해석하거나 상징으로 받으면 복음과 성경의 기초를 해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경학교, 신학교,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과 크리스천들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재해석하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성경이 아니라 수백만년과 진화론 영향이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재해석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는 것이며 세대를 지나면 더

육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결국 성경이 거부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영국과 유럽에서 진행 되었고 미국에서도 이미 기초를 깨어 버렸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의심, “하나님이 정말로...?”란 이 의심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창조, 홍수, 바벨탑 사건의 기사들을 과학을 통해 부정하려고 한다. 이 의심이 교회와 기독교적인 문화를 공격하여 미국이 성경의 토대를 떠나 세속적인 세계관과 상대적 도덕성을 가진 위기를 맞게 하였다. 교회가 수백만년과 진화를 성경에 적용하니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아이들의 82%는 성경의 권위에 확신이 없다.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문화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음악이나 예배 형식 같은 문화적인 방법으로 젊은 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여 기분 좋게 만들어 교회에 매어 놓으려 한다.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은 깊은 상처 위에 밴드에이드를 붙이는 격일 뿐이다. 진리가 그들에게 의미 있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 오락, 음악 등이 아니라 먼지, 화석, 돌, 뼈, 쓰나미, 지진, 바다, 산, 죽음, 그리고 지형과 지리학, 생물학, 인류학, 사회학 등에 관련 된 모든 것들과 연결점이 있는, 진짜 세상과 상관이 있는 성경의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 되어야 한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과 크리스천의 믿음은 ‘사실(facts)’로 지지 받고 확인 된다. 믿음과 사실이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을 아주 엉뚱하게 ‘해석’ 한 결과일 뿐이다.

“미래의 교회를 걱정하는가?” 교회의 미래는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가르치는데 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벧전3:15).



<Already Gone이미 떠나버렸다>의 연재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부모, 담임목사, 청년 담당 목사, 크리스천 교육자 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 원하는 분은 www.answersingenesis.org의 bookstore에서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자료들도 충분히 구비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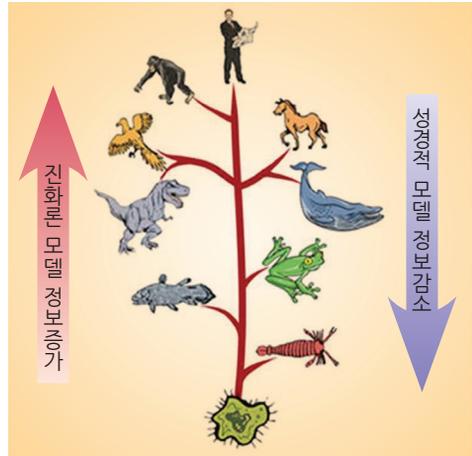
돌연변이가 **진화의 동력**인가?(3)

돌연변이에 대한 진화론과 성경의 견해

연못-찌꺼기가 오랜 시간에 저절로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은 생물이 아닌 화학 물질들이 생명이 있는 세포를 만들었고 이 단세포 생명체는 더 발전된 생명체들을 만들었다고 한다. 골자를 말하면, 수백만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정보가 증가되었고 오늘날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생명체들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본자가 사람으로 진화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체의 유전물질 안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체가 소 같은 것으로 진화하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 귀, 허파, 뇌, 다리 등을 암호화 할 새 정보 [무작위 염기쌍이 아니라 복잡하고 질서 있는 DNA]를 발전시켜야 한다.

아메바가 그렇게 변화하려면 그 DNA는 새 정보를 돌연변이를 통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아메바는 원형질 같은 제한된 유전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장, 신장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 증가가 계속 되어야 될 것이다. 만약 돌연변이로 DNA 가닥이 길어졌지만 그 염기순서가 아무 것도 암호화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그 염기순서가 정상적인 허파, 심장 등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더해진



DNA 양이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논쟁이 될 만한 정보 증가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진화가 사실로 받아 드려 지려면 그런 예가 수십억 가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 사실 이런 현상은 자연에서 관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반대 현상 즉 생명체가 정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생명체들은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누적된 정보 손실을 통하여 정보 획득을 이룰 수 있겠는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DNA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심히 좋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창세기 1:31). 이 선언은 원래의 각종 동물과 식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맨 처음에 그 생물들은 오류나 돌연변이가 없는 완전한 DNA 가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창세기 3장) 하나님은 땅과 동물들을 저주하시고 사람은 죽는 판결을 내리셨다(창세기 2:17; 3:19). 이 때 하나님은 유지하고 계셨던 힘 일부

를 거두어 버렸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분의 경외로운 능력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 그 이후로 돌연변이들이 발생하고 DNA 결점이 누적될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원래 DNA에 있었던 정보들 중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양이 여과(손실)되었는데 대부분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때문이었다.

노아 홍수 때 많은 육상 동물들과 사람들이 정보를 잃어버린 유전적 병목현상(bottleneck)이 있었다. 남아 있는 유일한 정보는 육상에 살면서 공기로 호흡하며, 방주에 탔던 각 종류의 동물들과 사람들의 대표들에게 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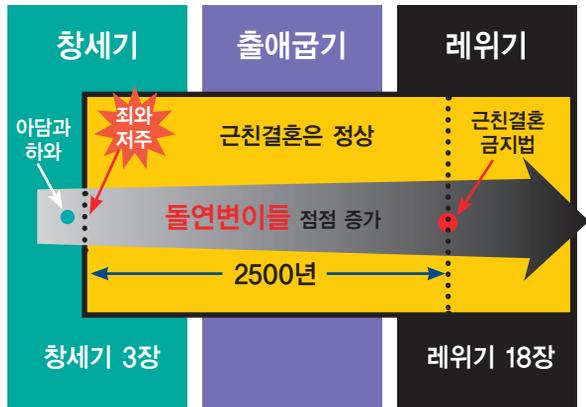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상에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돌연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들과는 서로 결혼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레위기 18).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가까운 친척들간의 근친결혼은 양친 모두에게 있는 유전적인 돌연변이들이 어린 아이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가 모두 그들의 공통 조상(예, 할아버지)에게서 똑 같은 돌연변이를 물려 받았다면 이 부모들이 그 돌연변이 된 유전자를 자기 아이들에게 물려 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까운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양 부모가 모두 똑같이 돌연변이 된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줄어들다. 어머니에게서 온 DNA 한 부분에 돌연변이가 있어도 돌연변이 되지 않은 아버지의 유전자로 보완이 될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온 DNA 한 부분에 돌연변이가 있어도 돌연변이 되지 않은 어머니의 유전자로 보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양친에게서 온 그 유전자들이 모두 돌연변이 되어 있다면 그 돌연변이는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가까운 친척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레위기 18에 명령을 하신 것이다.

결론

살아 있는 것들의 변화에 관한 성경적 관점은 연못-찌꺼기가 사람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놈(genome)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저주로 인해 그 반대 현상인 유전 정보의 손실이 예상된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돌연변이가 지놈에 결함을 줄 것을 예상하지, 돌연변이가 (가능하다 해도) 상



성경 기록과 관찰되는 돌연변이 현상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당히 많은 새 정보를 추가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 관찰된 결과들은 돌연변이는 압도적인 정보의 손실의 원인이지 진화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더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돌연변이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확인하는 훌륭한 과학적 예가 된다. 돌연변이의 파괴적인 효과들을 보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를 이은 돌연변이의 축적은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자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둔 사람들은 더 이상 아픔, 죽음, 질병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있다. 끝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으며

금요일과 토요일 세미나를 들으며 성경 말씀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며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아야 믿는 것이라면,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야 믿는 것이라면, 자신의 머리로 깨달아야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성경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어쩌면 더 쉽게 성경을 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너무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계심과 그 분이 남겨주신 성경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빼놓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전통과 지식과 이성과 논리를 더 믿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점점 세상을 따라갑니다. 안 믿어지니까 순종이 안 되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봉사도 했지만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향해 힘을 못 쓰고 세상에 끌려갑니다.

또한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바로 진화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동거의 급증, 동성결혼의 합법화, 그 부모들의 입양 증가, 하나님의 창조를 변질시킨 몇 가지 그럴듯한 이론들, 사람을 동물로 표현하는 것들(사회적 동물, 경제적 동물, 생각하는 동물, 고등 동물 등등) 이런 죄악들은 로마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버려두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바울이 말한 대로 '상실한 시대'입니다.

토요일 아침 세미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통계를 통해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빼앗긴다는데 걱정이 안 된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상함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를 살고 있으니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선교사님께서 하신 몇 가지 반복되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진화의 반대는 하나님의 본질이다/진화는 그들의 믿음이다/진화론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이어야 한다/처음이 좋았다/진화론을 믿는 믿음은 창조를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우리는 결코 one of the animals가 아니다/우리가 믿는 성경은 사실이다. 진리다/성경이 무너지면 돌아갈 곳이 없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이요 피조물인 인간을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이 세대가 바로 되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차례대로 무너집니다.

이런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중요함도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 어떻게 알고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영혼들이 되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9년 ACT Schedule

- 12/2 지구촌교회 (이재만), 본국
- 12/5 대전 온누리교회 (이재만), 본국
- 12/6 LA 온누리교회 새가족(최우성, 213-381-1390), LA
- 12/6 부산신흥교회 (이재만), 본국
- 12/7-8 의정부 새순교회 (이재만), 본국
- 12/9-10 조이어스 교회 (이재만), 본국
- 12/11-13 수원 하나교회 (이재만), 본국
- 12/19-20 라스베가스 하나교회 (이재만), NV
- 12/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빛교회, 샌디에고에서 출발, 858-874-2412)

2010년

- 1/4-6 7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 1/4-1/15 월드미션대학교 강의 (최우성, 323-823-4629), L.A, CA
- 1/24-26 로체스터온누리교회 (이재만), NY
- 2/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침례교 국내선교회 목회자, 801-644-3356)
- 2/26-28 빙햄튼 한인침례교회(이재만), NY
- 3/5-7 토론토 부활의 교회 (이재만), Canada
- 3/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만나 선교회, 213-381-1390)
- 3/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가주 기주 노회 국제총회, 213-381-1390)
- 4/1-4 동경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4/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Youth EM, 213-381-1390)
- 5/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 (홀러튼 장로교회, 213-381-1390)
- 5/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213-446-2821)
- 6/10-12 빙하시대 탐사여행 (개인 모집, 213-381-1390)
- 6/24-26 창조과학 탐사여행 (사랑의 빛 선교교회, 213-381-1390)

● 다른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